

[로켓랩 실적 Preview] Electron 다음, Neutron 시계는 어디쯤

26.08.11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8 월 11 일, 숫자보다 일정표가 먼저 읽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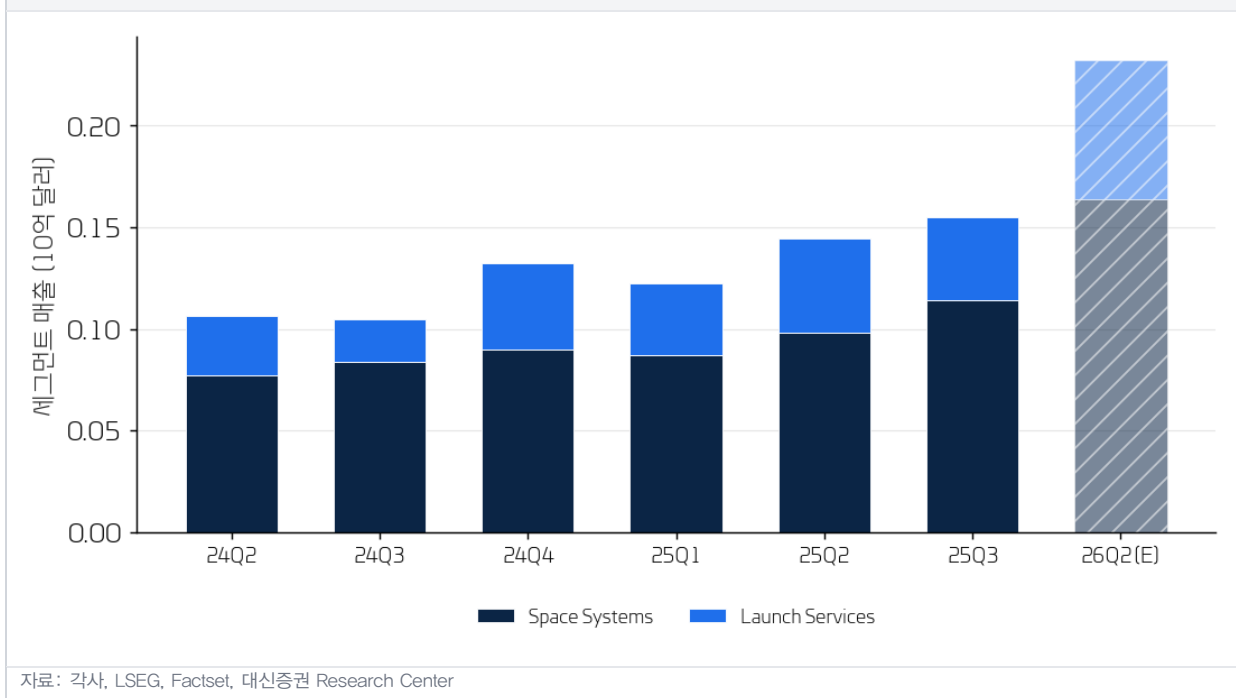
로켓랩은 2026 년 8 월 11 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회사를 처음 보는 독자라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소형 로켓 Electron 으로 위성을 대신 쏘아 올려주는 발사 사업, 그리고 위성 본체와 부품·솔라패널 등을 만들어 파는 우주 시스템 사업이다. 매출 비중으로는 후자가 더 크고, 시장의 관심은 대체로 전자에 쏠려 있다. 그래서 이번 발표도 매출·이익 숫자 자체보다 대형 로켓 Neutron 의 진척과 발사 일정의 어떻게 언급되는지가 더 크게 읽힐 가능성이 있다. 이번 프리뷰 시점에서는 시장 평균 전망(컨센서스)과 회사 가이드(자체 전망)의 확인된 수치가 확보되지 않았다. 없는 숫자를 지어내는 대신,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

발사 횟수와 단가, 두 개를 같이 봐야 한다

Electron 사업에서 확인할 항목은 단순하다. 분기 중 몇 번 쏘는지, 그리고 발사 한 건당 받는 금액이 어디쯤에서 형성되는지다. 발사 횟수만 늘고 단가가 높으면 매출은 커져도 마진(이익률)은 제자리에 머문다. 반대로 횟수가 정체돼도 단가와 수주잔고(앞으로 매출로 잡힐 계약 잔량)가 두터워지면 향후 궤도는 오히려 좋아진다. 경영진이 하반기 발사 계획을 몇 회로 제시하는지, 그 숫자가 상반기 실행 속도와 어긋나지 않는지가 신뢰도를 가르는 대목이다. 정부·방위 관련 계약 비중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경기와 무관하게 예산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로켓랩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Neutron 은 기대가 아니라 일정으로 평가받는 국면

로켓랩 주가를 실제로 움직여온 변수는 Electron 의 분기 매출이 아니라 Neutron 이었다. 더 무거운 화물을 싣고, 재사용을 전제로 설계된 대형 로켓이다. 성공하면 회사가 다루는 시장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고, 주가 재평가의 명분이 된다. 다만 개발 단계 로켓의 일정은 미뤄지는 쪽이 정상에 가깝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첫 발사 시점에 대한 표현이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좁혀졌는지, 아니면 다시 폭넓은 범위로 되돌아갔는지가 관건이다. 엔진 시험과 1 단 구조물, 해상 착륙 준비 같은 중간 단계가 어디까지 왔다고 설명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만큼 잉여현금흐름(회사가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은 마이너스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적자 자체보다 그 폭이 회사가 예고한 범위 안에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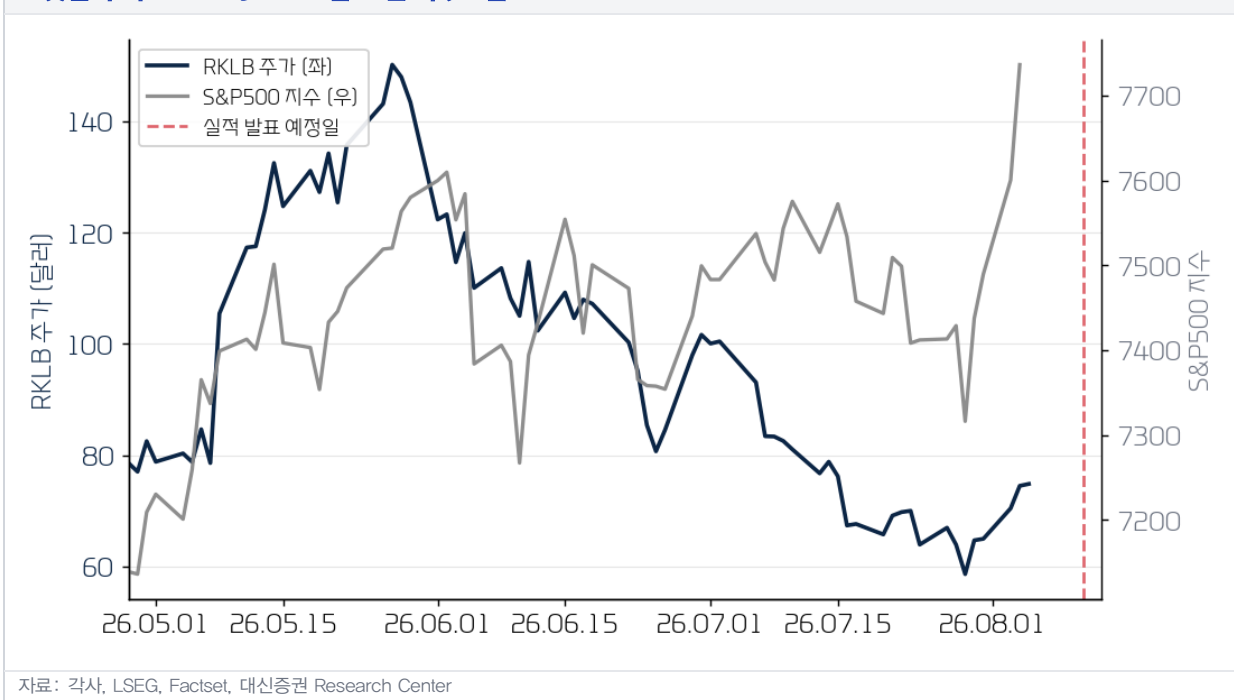
로켓랩 주가와 12 개월 선행 주당순이익의 추이



기대가 앞서간 주가는 작은 실망에도 민감하다

이 종목은 아직 이익으로 값을 매기기 어려운 구간에 있다. 주당순이익이 아니라 미래 성장 시나리오가 주가를 지탱한다는 뜻이고, 그런 주식은 서사가 조금만 흔들려도 반응이 커진다. 매출이 시장 눈높이를 웃돌아도 Neutron 일정이 뒤로 밀리면 주가는 아래로 반응할 수 있고, 반대로 분기 숫자가 다소 아쉬워도 일정이 앞당겨지면 위로 튈 수 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옵션시장이 반영한 예상 변동폭에 대한 확인된 자료는 없지만, 과거 이 종목의 실적 전후 움직임을 감안하면 한 자릿수 후반에서 두 자릿수 초반의 하루 등락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발표 직전 주가가 이미 크게 올라 있었는지 아니면 눌러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결과도 다르게 읽힌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로켓랩 주가 vs S&P500 — 발표 전 약 90 일



현금과 희석, 조용하지만 중요한 세 번째 축

개발 단계 기업에서 가장 늦게 주목받고 가장 크게 아픈 곳이 자금이다. 보유 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분기당 얼마씩 쓰고 있는지를 나눠보면 자금 조달이 필요한 시점이 대략 계산된다. 로켓랩은 그동안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를 통해 실탄을 확보해 왔고, 그 과정에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희석은 기존 주주가 감수해온 비용이다. 이번에도 추가 조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지, 나온다면 어떤 방식인지가 주가에 직접 영향을 준다. 반대로 수주잔고가 견조하고 선수금이 들어오면서 현금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졌다면, 그 자체가 이번 분기의 가장 조용한 호재가 될 수 있다.

시나리오와 우리 입장

상회 시나리오는 매출이 시장 눈높이를 넘고 Neutron 일정이 유지되거나 구체화되는 경우다. 이때는 개발 리스크에 붙어 있던 할인이 줄면서 주가가 위로 반응할 여지가 있다. 부합 시나리오, 즉 숫자는 무난한데 일정 표현이 그대로인 경우가 확률적으로 가장 두텁고, 이 경우 주가는 발표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하회 시나리오는 발사 횟수 부진과 일정 지연, 현금 소진 가속이 겹치는 경우다. 이때는 실적 자체보다 성장 서사의 시간표가 뒤로 밀렸다는 해석이 붙으면서 조정 폭이 커질 수 있다. 이번 노트 작성 시점에서 시장 평균 전망과 회사 가이드언스의 확인된 수치가 확보되지 않은 만큼, 우리는 로켓랩에 대해 **중립** 의견을 제시한다. Neutron 의 첫 발사 일정이 구체적인 날짜로 좁혀지는 시점이 의견을 다시 조정할 지점이다.

한눈에 보는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시장 눈높이(컨센서스)	회사 가이드언스	우리가 보는 초점
분기 매출	확인된 수치 미확보	확인된 수치 미확보	우주 시스템 부문이 성장을 계속 끌고 있는지
Electron 발사 횟수·단가	확인된 수치 미확보	하반기 발사 계획 제시 여부	횟수 증가가 단가 희생 없이 이뤄졌는지
Neutron 진척	첫 발사 시점에 관심 집중	일정 표현의 구체성	범위가 좁혀졌는지, 다시 넓어졌는지
설비투자·현금흐름	적자 지속을 전제로 형성	확인된 수치 미확보	잉여현금흐름 적자 폭이 예고 범위 안인지
자금 조달·주식 희석	—	추가 조달 언급 여부	수주잔고와 선수금이 현금 소진을 얼마나 늦추는지
다음 분기 가이드언스	확인된 수치 미확보	발표 당일 제시 예정	연간 전망을 유지하는지, 하향 조정하는지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